

재해사례

(조리솔)

조리솔 내부 기름기 제거 중 빠져 화상



탕류 생산공장 내 조리(스팀)솔에서 갈비탕을 삶아낸 후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체를 숙여 몸에서 멀리 떨어진 솔 내부의 기름기를 걷어내는 도중,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상반신이 조리솔(지름 : 1.2m, 깊이 : 1m) 내부로 빠지면서 화상을 당함



! 재해발생 원인

●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미흡

- 작업발판에 미끄러짐 등 솔 내부로 빠짐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작업을 수행
- ※ 신장에 비해 솔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음 (신장 약 172cm, 작업발판에서 솔의 상단까지의 높이 약 78cm)



+ 안전작업 방법

TIP

1 안전난간 설치 및 미끄러짐 예방 조치 강화

- 작업발판 주위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솔 내부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(90cm 이상)을 설치
- 발판의 상부 재질은 마찰력을 높여 작업자의 미끄러짐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익스펜디드 메탈(Expanded metal)이나 타공판으로 설치

2 미끄럼 방지 장화 등의 보호구 지급·착용 철저

- 미끄럼 방지용 장화를 지급하고, 작업시 반드시 착용토록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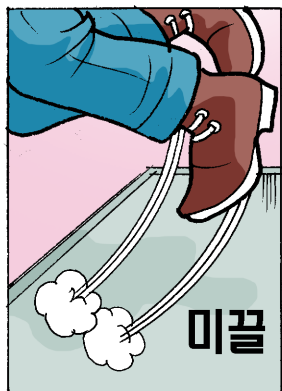




조리솥 내부 기름기 제거 중 빠져 화상

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세요!

이번 재해는 조리솥에서
기름기를 제거하던 중
상반신이 빠져 화상을 입고
치료 중 사망한 재해입니다.



생산 설비의 작업대
또는 발판, 점검
통로 등 작업자가
떨어지거나 미끄러질
위험이 있는 곳에
안전난간을 설치하고,
바닥이 미끄러지지
않도록 조치하여야
합니다.



참고법령 및 기준
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조(전도의 방지 등),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